

한국과 프랑스의 남성 모자 비교연구 - 17~18세기를 중심으로 -

양지나⁺ · 이상은^{*}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Comparative Study on Korea and French Men's Hat - During 17th Century to 18th Century -

Jina Yang⁺ · Sang-Eun Lee^{*}
Lecturer,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Prof.,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2007. 7. 12. 접수; 2007. 8. 17. 채택)

Abstract

A hat is a general term for what human beings wear on their heads in order to protect them from the cold or heat, to be used for ornament, or to symbolize social position. A hat represents the position of a man who wears it, attitude toward the society, and faith for a religion for males.

Since men's hats can create their image and uniqueness in casual wear from current fashion items, they are proposed as a fashion accessory item of designers each s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ats, which are part of costume, in a more analytic method. The research range of this study is hats for men in the upper class in the 17th to 18th centuries from the history of costume when diverse periodic and characteristic costume changes occurred.

In the 17th to 18th centuries in the middle of the Chosun Dynasty, changes in costume occurred as the feudal society of the dynasty had been dissolved since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Political power was established in France as the Baroque Age began in the 17th century. Since European costume, especially women's costume led fashion in France, the country represented the age better than any other countries. Aristocratic costume in the Rococo Age of the 18th century was changed to completely different shape of costume after the French Revolution. In this regard, this age was deem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comparison of costume.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mmon and different features of periodic factors that affect changes in costume by researching the hat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same age in order to understand relation between periodic characteristics and costume throughout history of costume.

Key Words: Hat(모자), Upper class men(상류층 남성), Periodic factors (시대의 요인)

⁺Corresponding author ; Jina Yang

Tel. +82-11-9996-9286, Fax. +82-2-450-3304

E-mail : yangjina1121@hotmail.com

I. 서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신체를 치장하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해온 것이 바로 복식과 두식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복식과 두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더 가치화하고 미화하였다. 복식을 착용하지 않고 전라의 몸으로 생활하던 고대인들도 머리에 대한 장식은 대단히 즐겼는데 이들은 머리 장식을 보호의 기능이나 단순한 아름다움보다는 상징적인 측면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¹⁾

모자는 추위나 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거나 장식적 또는 사회적 지위(계급, 신분),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머리에 쓰는 것의 총칭이다. 모자는 남자에게는 착용자의 지위, 사회에 대한 태도, 종교에 대한 믿음을, 여자에게는 자신의 소속 계층, 성장 배경, 혼인 여부 까지도 나타낸다. 또한 개인적 자기표현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사회적, 시대적 표출이기도 하다.²⁾

현재 패션 아이템에서 남성의 모자는 캐주얼 연출시 자신의 이미지를 살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매 시즌 디자이너의 패션 액세서리 아이템으로 선보여 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복식사를 통해 보이는 각 시대의 대표적인 형태의 복식들은 과연 어떤 요인들에 의해 급진적 또는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어 선행 연구된 관련논문을 살펴본 결과 복식변화와 변화요인에 관련된 논문은 많으나 복식의 중요한 요소의 한부분인 모자를 중심으로 특정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쓰인 논문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식의 한부분인 모자를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복식의 역사적 흐름을 볼 때 시대적인 변화와 복식에 특징적인 변화가 다양했던 17~18세기로 시대를 정하여 상류층 남성 모자를 연구하고자 한다.

조선의 중기인 17~18세기는 임진왜란(1592) 이후 조선의 봉건 사회체제 해체를 겪으며 복식에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프랑스는 17세기 바로크시대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권력이 프랑스 중심으로 확립되었다. 프랑스는 유럽복식 특히 여성복식의 선도로 패션을 이끌었으며

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그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8세기인 로코코 시대의 귀족적인 복식에서 프랑스 혁명 후에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복식으로 변화하였으므로 형태 비교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³⁾

본 연구에서는 두 나라의 동시대 모자 연구를 통해 복식변화에 작용하는 시대적인 요인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 복식사 전반에 걸쳐 시대적 특성과 복식형태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조선의 사회현상

조선시대의 두식이 의복의 일부로서 다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특별한 의식에 참여할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거의 관모를 착용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남성들은 집에서조차 항상 관모를 쓰고 있었다는데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 국교를 삼았던 유교가 의관(衣冠)의 정제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⁴⁾

17.18세기 조선은 사회 문화적인 변동의 시기였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복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사회 환경이나 정치 경제의 변혁, 과벌의 형성, 신분의 사회적 이동, 수공업의 확산 및 사회에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문화 변동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들은 새로운 형태의 복식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복식규제'를 통하여 신분 계층에 따른 기강 확립과 무절제한 동경에 대한 풍속교화, 사치 풍조에 대한 검약정신을 함양하고자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따른 복식이 변화를 금압하였다. 따라서 시대적 변천이나 사회 현상의 변인에 따라 복식 규제에 대한 목적 및 강조점이 바뀌었다.⁵⁾

조선시대에는 양반을 상층으로 하고 천민을 최하층으로 하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으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신분제 전반의 동요 속에 봉건적 신분사회 해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조정에서는 국난극복을 위하여 식량, 병력 및 국가 경

비를 백성에게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직면했고 이에 대한 논공행상(論功行賞)으로 공명첩을 전라도, 함경도, 평양 감영 등 각 지역마다 수백 장씩 만들어 신분을 향상시켰다. 또한 17세기는 주로 군량 등 재정궁핍과 구호정책중 하나로 실시된 납속책, 정규전이나 유격전등의 수많은 전투에서의 군공, 병력을 충원시키기 위한 무과시험 등으로 신분 향상의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이모작, 특수작물의 재배 등 농업기술상의 발전은 농민들에게 부를 축적해 갈수 있는 길을 터놓았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서얼과 향리 뿐 만 아니라 천민까지도 양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처럼 봉건적 신분제가 해체되고 기강이 해이해져 신분의 구별이 없어지자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신분이 상승하였음을 과시하고자 하는 자들의 복식변화와 혼돈은 당연한 귀결이며, 더 이상 규제에 의하여 억압될 수 없는 대세였다.⁶⁾

2. 프랑스의 사회현상

유럽사회에서 모자는 머리를 보호하거나 장식적 또는 사회적 지위,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모자를 착용하였다. 남성들은 조선시대의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도 항상 모자를 착용하여 본인의 사회적 지위나 멋과 위엄을 표시하였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들어와 17세기 중엽을 지나면서부터는 정치적 권력 중심이 프랑스 궁정에서 확립되었다. “유럽제국의 모델” 또한 “전 유럽의 군주의 찬영의 적”이 된 루이 14세는 왕권신수설의 집약된 표어를 들고 안으로는 절대왕정을 완성하고 밖으로는 수차의 침략전쟁을 일으켜 영토를 확장, 루이 14세 시대라 일컫는 프랑스의 황금시대를 맞이하였다. 서구제국을 정치, 경제면에서 지배한 프랑스는 풍요한 문화의 원동력을 기반으로 루이 14세 치하에서 Colbert 재상의 공업정책 수행과 탁월한 수완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하였다.⁷⁾

루이14세가 유럽에 행사한 주도권은 패션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당시까지 각 나라나

도시의 의상에 존재하던 나뭇대로의 특징이 17세기에 이미 끊임없이 몰려오는 프랑스 유행 앞에 사라져갔다. 어떤 법규를 제정해도, 아무리 금지를 해도 모두 헛일이었다. 18세기 사회의 의상은 어디서나 똑같이 소위 프랑스풍이었으므로 프랑스 복식사가 저절로 유럽의 복식사가 된다. 베르사유 궁정에 등장하는 유행의 본보기는 파리사회에 영향을 주었고 거기에서 다시 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풍으로 옷을 입은 사람은 자신이 높은 신분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 보였고 이러한 영향은 프랑스 산업체들이 비로드천, 비단, 레이스 천, 등과 같은 사치품을 대부분 생산하게 되면서 프랑스에서부터 점점 더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었다.⁸⁾

18세기 초에 프랑스는 전성기를 자랑하는 루이 14세의 후광으로 여전히 이전 시대의 호화로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유럽대륙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Ausburg 동맹전쟁, 에스파니아 계승전쟁 등 여러 전쟁에서 모두 영국에게 패하여 평화협상으로 Utrecht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1715년 루이 14세의 사후 프랑스의 영토 확장 욕망은 일단락 짓게 되었다.⁹⁾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가장 전형적인 시민혁명으로 프랑스 뿐 아니라 전제주의 유럽 여러 나라에 자유와 평등, 국민주의,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었다. 1789년 국민의회는 신분에 따른 복식규제법을 폐기하여 복식의 민주화법으로 보장하였다. 이것은 부르주아 생활전반에 걸친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1791년 이후에는 귀족들의 상징이었던 호화로운 의복과 함께 깃털, 자수 등은 사라지고 실용성 위주의 복식이 이용되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귀족계급의 복식특권이 폐지되고 민주적인 복식으로 실용화,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복식사상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¹⁰⁾

III. 조선과 프랑스의 남성용 모자

1. 조선시대의 양반계층 외출용 관모

초기의 관모는 남성용이나 여성용 모두 더위

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여기에 미의식과 상징성이 들어가게 되었고 특히 조선시대의 남성 관모는 어떤 기능적인 면이 없어도 신분 노출의 상징성이나 장식적인 면에서 관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관모에는 옛 조상들의 생활방식 및 미의식이 구현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에서 우리나라 왕을 위한 왕복을 보내오면서 명나라의 복식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의 관모를 받아들여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선 특유의 문화와 전통을 접목시켜 조선 고유의 독자적인 관모를 탄생시킴으로써 오히려 중국보다 훨씬 다양하면서도 아름다운 관모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관모역사는 우리 전통의 맛이 정립된 시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¹¹⁾

조선시대 관모는 고대로부터 시작하여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각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현상 및 미의식에 따라 그 크기와 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두식문화’는 조선시대 남성의 가치 지향적 표현이었고 멋과 위엄의 소산이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붕괴와 함께 단발령이 내려지고 서양복식의 착용으로 현대식 서양모자가 조선시대 남성의 관모를 대체하게 됨에 따라 그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추구하던 가치가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닌 사회가 되어 버렸다.¹²⁾

조선왕조의 관모제는 고려의 제도에 명의 관모제도를 받아들이고 다시 조선 왕조의 특색을 보이면서 발달하였으며, 용도나 신분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되었다. 입(笠)은 원래 햇볕이나 비와 바람을 가리기 위한 실용적인 용구로서의 쓰개였으나 재료, 형태, 제작법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사회성을 가지는 관모로 되었다. 관모는 형태상으로 볼 때 모자와 양태의 구별이 어려운 방갓형(方笠)과 그 구별이 뚜렷한 패랭이형의 두 계열이 있다. 방갓형의 갓으로는 방갓, 삿갓 등이 있고, 패랭이 형으로는 패랭이, 초립(草笠), 흑립(黑笠), 백립(白笠), 주립(朱笠), 옥로립(玉鸞笠), 전립(戰笠) 등이 있다. 넓은 의미의 갓이라 하면 방갓형과 패랭이 형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갓을 말하나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갓, 즉 흑립을 말한다. 흑립은 패랭이에서 초립의 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되어 조선조 오백년의 대표적인 입제로 정착된 것으로, 사대부나 서민 모두에게 사용되었으며 섬세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우리나라 사람의 고유한 멋을 나타내는 의관이 되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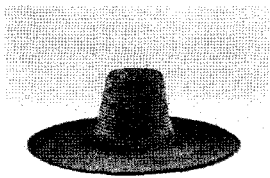
조선시대 양반은 분반과 무반의 두 반열을 가리키던 말로서 관직제도상이나 지배신분층을 지칭하던 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양반계층의 외출용 관모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보았다.

1) 초립(草笠)

조선시대 선비나 일반 서민 또는 관례(冠禮)를 치른 나이 어린 남자가 쓰던 갓이다. 가는 대울이나 누런 빛갈의 가는 풀로 결어 만드는데, 재료에 따라 죽사립(竹絲笠), 모립(毛笠), 죽립(竹笠)이라고도 한다. 초립은 조선시대 초기에는 선비나 서인이 함께 사용하던 관모였는데 15세기 중엽에 일반 백성이 쓰는 것과 양반이 쓰는 것에 차이가 생겼다. 형태는 패랭이와 비슷하나 재료나 제법상 패랭이 보다 더 발전한 형태로 갓과 비슷하다.¹⁴⁾ 조선 중기 이후 흑립이 사대부들의 일상 관모로 정착됨에 따라서 초립은 사대부가에서는 관례(冠禮)를 올린 어린 남자만이 흑립을 쓰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마장 위예 착용하게 되어, 이들을 ‘초립동’이라 부르게 되었다.¹⁵⁾

2) 흑립(黑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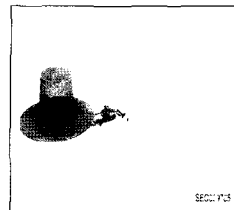
사대부들이 외출용으로 쓰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관으로서 이를 갓이라고도 한다. 흑립은 평량자 형으로 평량립, 초립 등의 단계를 거쳐서 조선말기 갓 형태로 정립되었다.¹⁶⁾ 흑립은 대나무를 머리카락만큼 가늘게 짜고 이것을 모아 그 위에 검정 옷칠을 한 흑립은 편복 관모로서 주로 양반층에서 일상모(日常帽)로 사용되었으며,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던 조선 고유의 관모였다.¹⁷⁾ 흑립은 시대에 따라 상당히 다른 형태를 보이며 변화, 발달해 왔는데 주로 모자의 모양과 높이 차양의 넓이에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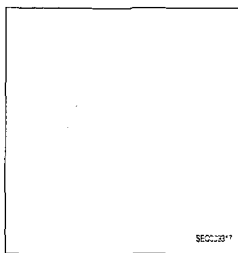
<그림1> 초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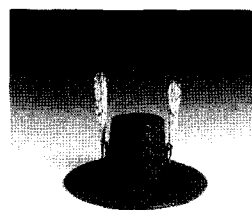
<그림2, 3> 흑립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서울



<그림4> 옥로립
<http://hair.culturecontents.com>



<그림5> 옥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서울



<그림6> 주립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서울

화를 주어 조선시대 남자 의관의 유행을 선도하였다.¹⁸⁾

3) 옥로립(玉鸞笠)

옥으로 만든 해오라기를 장식한 것으로서 흑립 중에서 상등품에 속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고관이 궁중의 의례에 참가할 때나 외국에 사신으로 나갈 때 예복과 함께 착용하였고 특별한 의식 때 주로 사용하였다. 옥로립은 옥로를 갖의 꼭대기에 붙임으로 해서 생긴 이름으로 보통의 것보다 화사하였고 착용한 사람의 신분과 권위가 높음을 나타내었다. 옥로(玉鸞)는 옥으로 해오라기를 만들어 사용한 장식품을 말하는데, 옥로립은 옥로가 하늘로 비상하는 순간을 나타내고 있어 정직하고 청렴결백한 고관을 상징하였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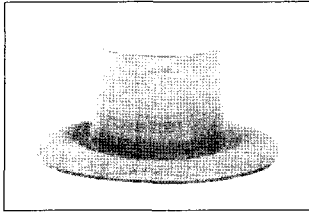
4) 주립(朱笠)

주립은 가는 대나무 울로 모자와 양태를 만들고 붉게 옷칠한 것으로 조선시대 고관의 예복인 율복에 사용하였다. 형태는 일반 것과 같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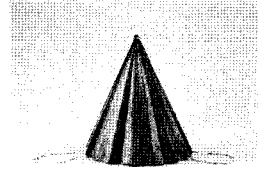
장식으로 호수(虎鬚, 호랑이 수염)를 달았는데 호랑이 수염이 귀했으므로 실체는 보리이삭을 사용했다. 호수를 전후좌우에 꽂고 정자를 장식하고 홍색과 황색의 구슬을 꿰 끈(패영)을 달아 멋을 부렸다. 조선 초기에는 문무 당상관이 예복에 착용하였으나 품위가 덜하다 하여 후기에는 무당이 쓰는 모자가 되었다.²⁰⁾

5) 백립(白笠)

백립은 흰색 것으로서 국상 중에 상복(喪服)에 사용하던 것이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모든 관원들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국상 중에는 모두 백립을 착용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흑립과 같은 형태로서 양태와 모자는 얇은 대나무 울로 만들고 그 위를 흰색 삼베로 감쌌다. 국민이 국상(國喪)을 착용하여 슬픔을 표하던 것이며 또 이 삼년상을 치르고 담제(禫祭, 대상(大祥) 다음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까지 가는 동안에 평량자(平涼子, 패랭이)대신 쓰기도 하였다.²¹⁾



<그림7> 백립,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서울



<그림8> 갓모(갈모),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서울

6) 갓모(갈모)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쓰는 우장(雨裝)으로 갈모라고도 한다. 원래 명칭은 입모(笠帽)이며 또한 우모(雨帽)라고도 하였다. 형태는 위가 뾰족하고 아래는 둥그스름하게 퍼져있어 펼치면 고깔 모양이 되고 접으면 훌쭉해서 쥘부채처럼 된다. 갈모지 또는 환지라는 기름을 먹인 종이에 접은 간살마다 대를 가늘게 잘라서 만든 살을 넣고, 꼭대기에 닭의 벋처럼 생긴 꼭지를 단다. 안쪽 중턱의 양옆에 실끈을 달아서 비가 올 때에는 갓 위에 펼쳐 쓴 뒤 이 끈을 턱밑에 매어 고정시킨다.²²⁾

2. 프랑스의 남성 상류층 모자

유럽에서 모자는 모든 남, 여성들이 예외 없이 모자를 쓰고 외출하며 이것은 패션의식에서 보다는 습관과 의례적인 것이었으며 이러한 일상적 모자 착용은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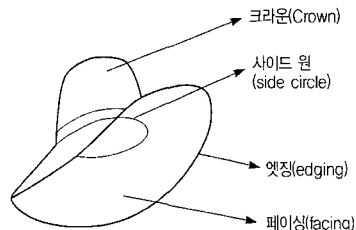
17세기 프랑스에는 의상과 조화를 이루는 가발이 등장하였다. 루이 14세 시대 소개된 남성 모자로는 남녀 모두 착용한 챙이 넓은 모자나 또는 퓨리탄햇이 있었고 17세기 후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Hood를 턱에 매어 착용하였다. 또한 영국에서 소개된 트리콘햇은 유럽 전체에 유행하게 되었다. 트리콘햇은 중산층에까지 널리 애용되어 18세기에는 남성의 대표적인 모자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을 분기점으로 하여 트리콘햇의 유행은 점차 쇠퇴하고 대신 바이콘햇이 등장하였는데, 바이콘햇은 나폴레옹의 모자로 상징되기도 하고 선정적, 파괴적이라는 삼각모의 특징에 대비하여 절제적, 합법적, 역동적이라는 대조적 특성이 거론되곤 하였다.²³⁾

18세기 초 루이 15세의 즉위 이후 사람들은 형식성과 중압감에 대한 반향으로 쾌락을 즐기길 원하여 예술과 생활에 있어서 자유분방하고 무절제함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머리모양이 거대해지고 화려해짐에 따라 모자는 그리 중요시되지 않고 가발이 더욱 화려해졌다. 가발이 유행되어 지면서 모자는 실용성보다는 장식적인 요소로 주로 남성들이 옆구리에 끼고 다녔고 이를 샤프 드 브라(chapeau de bras)라 하였다.²⁴⁾ 그러나 18세기말 가발이 점차 사라져가자 모자의 역할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모자와 다양한 스타일이 출현하게 되었고 18세기 중반부터는 남, 여성 모두 모자를 쓰고 외출하였으며 이러한 모자 착용은 20세기 중반까지 이어



<그림9> 샤프 드 브라, 서양복식의 역사, p294



<그림10> 모자의 명칭, 패션코디네이션을 위한 모자디자인, p12



<그림11> 1642년경 비버햇
서양복식의 역사, p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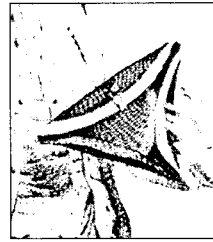
<그림12> 1795년경 비버햇
서양복식의 역사, p336



<그림13> 1660년 퓨리탄햇
서양복식의 역사, p294



<그림14> 18세기 트라이콘햇, Hats. p124



<그림15> 1730년 트라이콘햇, 서양복식의 역사, p336

졌다.25)

프랑스 모자의 명칭은 부분적으로 크라운(crown), 브림(brim), 사이드(side), 엣징(edging), 페이스(facing)으로 이루어진다. 크라운은 두부에 씌워지는 부분을 말하며, 디자인에 따라 둥근형, 각진형등이 있다. 브림은 소위 일반적으로 챙이라고 부르는 전문적인 용어로 크라운 밑 부분에 달려있으며, 평평하게 넓은 것에서부터 얼굴을 덮는 경사진 것등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 브림의 둘레선은 엣징이고, 브림의 안쪽 면은 페이스이다.26)

본 논문에서는 17~18세기에 나타난 프랑스 상류층 남성들의 외출용 모자를 중심으로 요약해 보았다.

1) 비버햇(beaver hat)

17세기 남성들의 가장 널리 사용되던 모자로 남성들은 긴 머리를 풀고 비버햇을 외출할 때 착용하였다 비버햇의 형태는 모자의 브림이 넓고 크라운은 높은 형태로 되어있고 모서리부분은 깃털로 장식하였다. 18세기에 17세기와 마찬가지로 비버햇을 남성들이 착용하였다. 그러나 화려한 깃털 장식보다는 18세기 말에는 심플한 밴드와 비클로 장식되어 착용하였다.27)

2) 퓨리탄 햇(Puritan hat)

1638년에 선보인 퓨리탄 햇은 크고 납작한 챙의 비버햇 모양으로 청교도에서 영향을 받은 모자이다. 크라운이 높고 모자 착용 시 머리는 길게 풀고 블라우스의 칼라는 좁고 가장자리는 레이스로 장식 되어 있는 것을 입는 스타일이 유행이었다.28)

3) 트라이콘 햇(tricorne hat)

17세기에 남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모자로 18세기말까지 트라이콘은 존재했었다. 트라이콘은 모자의 챙이 3면으로 되어있고 그중 한면이 머리 앞쪽으로 오게 착용하는 모자였다. 이 모자는 유럽전역으로 유행되었고, 남성들은 각자 본인의 개성을 모자장식을 깃털이나 보석 박힌 밴드로 표현하기도 하였다.29) 유럽에서 트라이콘햇은 상류계급과 전문 직업 종사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계급의 상징이 되었다.30)

4) 바이콘햇(bicorne 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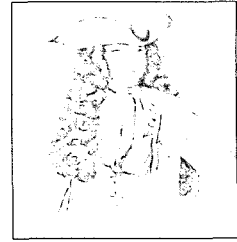
프랑스 혁명 이후 트라이콘햇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면서 바이콘햇이 등장하였다. 바이콘은 정



<그림16> 나폴레옹 바이콘햇
www.answers.com



<그림17> 콕드햇, Hats, p110



<그림18> 690년경 콕드햇
서양복식의 역사, p294



<그림19> 1793년 프랑스 웰링턴햇, Hats, p126



<그림20> Duke of Wellington, www.abcgallery.com

장용으로 나폴레옹이 썼던 것으로 넓은 챙의 양옆이 위로 휘어진 검정색 모자였고 대부분 아무런 장식 없이 쓰였는데 때로는 깃털이나 버클 같은 장식이 있기도 하였다.³¹⁾

의 테두리는 금색리본으로 둘러져있다. 18세기에는 이처럼 유명 정치가에 이름을 붙여 유행된 모자가 등장했다.³⁴⁾

5) Cocked hat

바이콘햇에서 전개된 형태로 깃털이 모서리 부분에 장식 되어있는 모자이다. 이 모자는 프랑스남성들에게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가발위에 쓰는 모자로 17세기 말에 유행이었다. 18세기 초에는 콕드햇과 형태는 비슷하나 비버나 토끼 모피로 만들어진 Casters hat이 등장하며 유행하였다.³²⁾ 이 당시 캐나다에서 비버모피를 수입해서 모자를 제작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모자의 가격이 비싸지면서 'half beaver'라는 모자가 발명되었다. 이 하프 비버햇은 비버털 뽑아서 일부만 펠트소재에 부쳐서 만들어진 모자를 뜻했다.³³⁾

6) Duke of Wellington hat

영국정치가 Wellington에 의해 유행된 모자로 유럽전역에 18세기 말에 유행되었다. 모자의 brim부분에 타조깃털로 장식되어있고 모자의 챙

IV. 조선과 프랑스의 모자비교

1. 시대적 배경 비교

17~18세기 조선과 프랑스는 근대사회와 연결되는 전근대사회로 조선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사대부 중심사회에서 일반서민 중심사회로 변화하면서 대대적인 혁신이 요청되던 시기였으며, 프랑스도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근대적인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절대왕정에서 부르주아와 시민위주의 사회로 변화하였다. 경제적으로 조선은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경영형 부농의 등장과 사상무역의 발달, 상업의 발달 등으로 중인 및 서민계층의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계급적 신분상승이 나타나게 되었고, 프랑스의 경우도 시의 공인까지 포함한 부르주아적 계급은 구체제의 귀족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

인 지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으므로 복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복식의 실소비자층이되어 상류층의 복식을 모방하였다. 프랑스에서는 혁명 직후 잠시 동안은 귀족의 화려한 의상이 사라지고 귀족, 평민 모두 검소한 옷차림을 하였다.³⁵⁾ 이와 같이 조선과 프랑스 모두 17~18세기는 이전세기와 달리 엄격한 신분체제에서 벗어나 복식에 있어서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었고 동시대 두 나라의 경제적 변화가 비슷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2. 모자 형태 비교

조선시대의 관모의 형태는 주로 패랭이형으로 나타났는데, 패랭이형으로는 초립, 흑립, 백립, 주립, 옥로립 등이 있으며 일반가의 모양으로 형태는 비슷하나 용도와 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었다. 프랑스의 모자는 우리나라의 관모와 달리 형태면으로 크게 비버햇, 트라이콘햇, 바이콘햇 등으로 나뉘어 볼 수 있었다. 그 중 비버햇의 형태는 조선의 흑립의 형태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외출용 관모를 살펴보면 호수로 장식된 주립 외에는 대부분 장식보다는 단순한 형태로 갖의 색을 통해 단아한 멋과 고결한 품위를 풍겨주는 남성의 멋을 더해 주었다. 이에 반면 프랑스 모자는 17세기에는 깃털이나 보석 박힌 밴드로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18세기말에는 심플한 밴드나 버클로 장식하여 남성들의 권위와 사치스러움을 표현하였다.

3. 모자 용도 비교

조선시대의 남성관모는 어떤 기능적인 면이 없어도 신분 노출의 상징성이나 장식적인 면에서 관모를 사용하였다. 양반 계층의 외출용 관모를 살펴본 결과 외출 시 항상 착용했던 흑립 외에는 주로 특정한 용도에 의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면 프랑스의 모자는 용도나 기능성보다는 권력이나 지위, 소속 계급을 반영하며 남성들의 권위와 사치스러움을 표현하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음을 알 수 있었다.

흑립은 조선조 시대에 가장 널리 착용된 관모

로 남성들이 가장 아끼고 분신처럼 여긴 관모였다. 그 당시 흑립의 모양과 높이, 넓이에 변화를 주어 남자의관의 유행을 선도하였는데 프랑스의 트라이콘이나 바이콘햇도 우리나라의 흑립처럼 17세기에 남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모자로 본인의 개성을 모자 장식으로 깃털이나 보석 박힌 밴드로 표현하고, 계급의 상징을 나타내며 평상시 착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조선의 관모와 프랑스의 모자의 형태는 다르나, 그 당시 두 나라의 모자는 남성들의 권위를 상징하며 유행을 선도하고 중요시 여겨졌던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V. 결론

모자는 머리를 보호하거나 장식적 또는 사회적 지위(계급, 신분),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머리에 쓰는 것의 총칭이다. 조선시대의 관모는 다른 어느 시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특별한 의식에 참여할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거의 관모를 착용하였고 집에서조차 항상 관모를 쓰고 있었다. 17~18세기 프랑스의 모자는 외출 시 항상 착용하는 의례적인 것이었으며 의상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모자가 나타났고 특히 남성들의 모자는 유행을 선도하며 여성들의 모자에 적용되어 디자인되기도 하고 남성들의 권위와 사치스러움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7~18세기 조선시대와 프랑스에 나타난 외출용 상류층 남성 모자를 시대적 배경, 형태, 용도로 비교해 보았다.

1.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외출용 관모의 형태는 패랭이형으로 종류별로 살펴보면 초립, 흑립, 옥로립, 주립, 백립, 갓모 등으로 나타났다. 이 관모들은 각종 의식과 용도 별로 나뉘어서 쓰였고 실용성과 상징성을 겸비하였었다.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관모는 흑립으로 사대부들이 외출용으로 쓰던 관으로 이를 갓이라고도 하였다. 흑립은 모자의 모양과 높이 차양의 넓이에 변화를 주어

유행을 선도하였다. 흑립 중에서 상등품에 속하던 옥로립은 보통의 것보다 화사하여 착용한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었다.

2. 프랑스

프랑스 모자는 형태별로는 우리나라와는 관모와 달리 비버햇, 트라이콘햇, 바이콘햇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모자들은 권력이나 지위, 소속, 계급을 반영하였으며 화려한 깃털이나 보석으로 장식하여 남성들의 권위를 표현하였다. 남성 모자중 트라이콘 햇은 중산층에까지 널리 애용되고 남성의 대표적인 모자로 부각되었고,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 모자로 상징되는 바이콘햇이 등장하였는데 절제적, 합법적, 역동적이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선과 프랑스는 지리적으로나 사회 전반적인 특성상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비슷한 사회배경 되었을 때 위와 같이 복식의 한 요소인 모자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자의 선행연구 자료들이 미흡하여 폭넓은 맥락에서 연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추후 이 부분을 강화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실물자료와 문헌자료를 통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최근 남성복의 모자는 패션 액세서리 아이템으로 변형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참 고 문 헌

- 1) 양진숙 (2005). *조선시대 관모사전*. 서울: 화산문화, p.18.
- 2) Hat History. Samsungdesign online. 자료검색일. 2007.5.11.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3) 김월계 (2003). 복식형태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18세기의 조선과 프랑스 복식비교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2.
- 4) 양진숙 (2005). Op. cit., p.10.
- 5) 이민주 (2004). 17·18세기 조선시대의 사회 현상과 복식변화. *민족문화연구* 41, p.62.
- 6) Ibid., p.67.
- 7) Men's wear History. Samsungdesign online. 자료검색일. 2007.5.11.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8) 막스 폰 빈 (2000). *패션의 역사*. 서울: 한길아트, p.58.
- 9) Hat History. Samsungdesign online. 자료검색일. 2007.5.11.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10) 김월계 (2003). 복식형태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18세기의 조선과 프랑스 복식비교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43.
- 11) 양진숙 (2005). Op. cit., p.12.
- 12) Ibid., p.15.
- 13) 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2천년*. 서울: 신유, p.211.
- 14) 홍지나 (2002). 관모의 상징성을 형상화한 섬유조형 연구 -직조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1.
- 15) 양진숙 (2005). Op. cit., p.49.
- 16) 홍지나 (2002). Op. cit., p.21.
- 17) 국립민속박물관 (1995). Op. cit., p.212.
- 18) 양진숙 (2005). Op. cit., p.51.
- 19) Ibid., p.56.
- 20) Ibid., p.57.
- 21) Ibid., p.58.
- 22) Ibid., p.59.
- 23) Hat History. Samsungdesign online. 자료검색일. 2007.5.11.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24) 조진에 외 (2001). *서양복식의 역사*. 서울: 경춘사, p.336.
- 25) Hilda Amphlett (2003). *HATS A History of Fashion in Headwear*.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p.127.
- 26) 김은실외 (2006). *패션코디네이션을 위한 모*

자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p.12.

- 27) Hilda Amphlett (2003). *Op. cit.*, p.109.
- 28) *Ibid.*, p.108.
- 29) 조진애외 (2001). *Op. cit.*, p.294.
- 30) 정금숙 (1999). *두식의 상징성에 대한 고찰 -고대에서 근세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9.
- 31) 김월계 (2003). *복식형태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18세기의 조선과 프랑스 복식비교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46.
- 32) Hilda Amphlett (2003). *Op. cit.*, p.110.
- 33) Francois Boucher 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Harry N.Abrams,INC, p.313.
- 34) Hilda Amphlett (2003). *Op. cit.*, p.127.
- 35) 김월계 (2003). *Op. cit.*, p.172.